노무현 대통령 설 메시지

국민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
그리운 가족들 생각에 고향 가는 길이 바쁘시지요? 그럴수록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어르신들께 세배 드리고, 정겨운 덕담도 나누는 아주 뜻 깊은 설날 되시기 바랍니다.

명절에도 근무지를 떠나지 못하는 국군장병과 경찰관, 소방관 여러분,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근로자와 버스·택시기사 여러분,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. 여러분 덕분에 온 국민이 즐거운 설을 보낼 수 있습니다.

해외동포 여러분과 한국에 계신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도 즐거운 설 보내십시오.

올 설에는 주머니 사정이 좀 나아지셨습니까? 어려운 분들은 아직도 어렵지만, 전체적으로 보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. 무리하지 않고 착실하게 올라온 만큼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 오래 갈 것입니다.

올해는 서민들이 어깨를 쭈욱 펼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물가와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,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은 책임있게 해나가겠습니다.

가족만큼 큰 힘은 없습니다. 서로 격려하고 새로운 자신감을 충전하는 알찬 설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.

고향 잘 다녀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